

■ 리트머스 레지던시 프로그램

- ▶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 “원곡동 레시피” 결과보고전
- ▶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 “원곡동 레시피” 작가와의 대화
- ▶ 지역협력프로그램 : 국경없는 레시피 (다국적요리 퍼포먼스) + King of The Art (사운드 퍼포먼스)
- ▶ 국내레지던시 프로그램 “IR-인터커넥티브로드” 결과보고전+오픈스튜디오
- ▶ 국내레지던시 프로그램 “IR-인터커넥티브로드” 작가와의 대화
- ▶ 국제, 국내 레지던시 창작워크숍

▶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 “원곡동 레시피” 결과보고전

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에서 주관하는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인 “원곡동 레시피” 참여작가들의 창작과정 및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결과보고전이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리트머스 갤러리에서 진행되었다. 8명의 아시아지역의 작가들이 2달여 동안 다문화지대인 원곡동을 리서치하고 이를 토대로 각자의 방식대로 기록한 원곡동에 관한 다양한 해석을 볼 수 있는 전시였다.

▶▶ 참여작가: 아스민 자한 (방글라데시), 휘우 루산 (중국), 코타 타케우치 (일본), 로사낙 오스테드 (이란), 라우 후 싱, 해니슨 (홍콩), 가누 구롱 (네덜), 윌리엄 (타이완-뉴질랜드), 녹 민 티 쉐 (베트남)



국제레지던시 참여작가 전시 공간 (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)

▶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 “원곡동 레시피” 작가와의 대화

국제레지던시 입주작가들의 원곡동에서의 입주기간 동안의 창작활동을 발표하는 자리로서 아시아의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온 작가들이 원곡동을 어떤 시선으로 접근했고 어떻게 창작활동으로 연결시켰는가에 대한 논의를 발표함과 더불어 각 작가들과 매칭된 비평가들의 또 다른 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.

▶▶ 참여작가: 아스민 자한(방글라데시), 휘우 루산(중국), 코타 타케우치(일본), 로사낙 오스테드(이란), 라우 후 싱, 해니슨(홍콩), 가누 구롱(네덜), 윌리엄(타이완-뉴질랜드), 녹 민 티 쉐(베트남)



국제레지던시 작가와의 대화 모습 (연산 외국인주민센터)

▶ 지역협력프로그램: 국경없는 레시피(다국적요리 퍼포먼스) + King of The Art(사운드 퍼포먼스)

“국경없는 레시피”는 주말이면 많은 이주민이 운집하는 원곡동 국경없는마을에서 축제형으로 진행된 창작워크숍으로 국제 및 국제레지던시 입주작가들 비롯해 리트머스와 연계하고 있는 작가들과 이주민들이 한데 모여 만들어내는 국적불명의 창작요리 퍼포먼스이다. 여기서 만들어진 음식은 원곡동 국경없는마을에서 살고 있는 지역민과 이곳을 방문한 이주민 및 내국인과 함께 나누며, 음식을 매개로한 예술가들의 창작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작은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다.

요리 퍼포먼스를 마친 후 2부 순서로 김오브더아트가 벌이는 사운드퍼포먼스가 리트머스 갤러리에서 펼쳐졌다. 컴퓨터와 사운드 콘트롤러를 통해 즉석에서 구현해내는 사운드 작업을 통해 시각과 미각에 이어 청각을 통해 원곡동에서의 소통의 밤을 이어갔다.

▶▶ 참여작가: 국내레지던시 입주작가, 국제레지던시 입주작가, 리트머스 작가, 이주민



다국적 요리퍼포먼스 활동 모습 (연산 외국인주민센터 광장)



사운드 퍼포먼스 활동 모습 (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)